

## 무성서원의반중수기(武城書院椅盤重修記)

1967\_김택(金澤) 지음/김봉두(金奉斗) 씀\_31.5×98.9cm



1967년 무성서원 태산사의 의자와 소반을 중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성된 기문이다. 당시 신태정(申泰貞), 김인기(金麟基), 전병욱(全炳钰) 등을 주도로 의견금을 모아 중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문은 김택(金澤)이 짓고, 김봉두(金奉斗)가 썼다.

### 武城書院椅盤重修記

魯論曰富而好禮鄒傳云好賢如色愛禮尊賢不離於道則不亦君子乎今夫武城書院湖南之首院而多士尊慕之所故上下數百年隨毀隨補士林之責也邇來士紀不振院貌凋殘難乎修補矣何幸公議竣發重修之役設已多年賴我僉彥之誠力庶至告訖然而至於賢宇之漫漶窓壁神位之蠹蝕椅盤勢至弩末末由竣功矣沃溝郡士人申君泰貞事業家也應儒選帶任奉審後與齋任金麟基多士全炳钰謀所以冀之捐金夥然窓壁重煥椅盤一新所謂爲山九仞功不虧一簣也然則斯人之尊賢誠心好禮事實可以不朽於後故士議攸同先此板面總若干言揭付之以視永傳紀念之志云爾

歲丁卯十二月下濤

金陵人進士 金澤記

金海人幼學 金奉斗書

儒林有司	金炳鼎
	金煥豐
	李允錫
	韓鍾旭
	金相洙
	盧泰源

本孫有司  
安恒燮  
鄭昌柱  
宋离浩  
金煥珍  
金永皓  
丁炳奎  
金煥益

#### 무성서원의반중수기[武城書院椅盤重修記]

『논어』에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한다”고 하였고, 『맹자』에 “어진 이를 좋아하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같이한다”라고 하였으니, 예를 아끼워하고 어진 이를 높이며 도에서 떠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지금 무성서원은 호남의 으뜸가는 서원이고 많은 선비들이 우러러 사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후 수백 년 동안 훼손되는 대로 보수했던 것은 사람의 책무였다. 근래 선비의 기강이 멀치지 못하여 서원의 모습이 쇠잔해져도 보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다행히 공의(公議)가 일어나 중수 공사가 시작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우리 여러 선비들의 정성 덕분에 거의 공사를 마치기에 이르지만, 현우(賢宇)는 창문과 벽이 허물어지고 신위(神位)는 의자와 소반이 좀먹어 형세가 매우 쇠잔한 지경에 이르러 준공될 방도가 없었다. 옥구군(沃溝郡)의 사인(士人) 신태정(申泰貞) 군은 사업가인데, 유생들의 천거에 부응하여 직임을 띠고 봉심(奉審)한 뒤에 재임(肅任) 김인기(金麟基), 선비 전병옥(全炳鈺)과 더불어 수리할 방도를 도모하여 모아진 의연금이 매우 많았다. 창문과 벽이 다시 완해지고 의자와 소반이 새로워졌으니, 이른바 아홉 길 높이의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을 쌓아 공이 무너지지 않은 격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진 이를 존숭한 정성스런 마음과 예를 좋아한 사실을 후세에까지 불후하게 할 만하다. 때문에 사람이 동의하여 먼저 이 판면(板面)에 약간의 말을 총괄하여 걸어 놓음으로써 길이 전하고 기념하는 뜻을 내보인다.

정묘년(丁卯, 1967) 12월 하순 금릉인(金陵人) 진사(進士) 김택(金澤) 짓다.

김해인(金海人) 유학(幼學) 김봉두(金奉斗) 쓰다.

유림(儒林) 유사(有司)  
김병용(金炳庸)  
김환풍(金煥豊)  
이윤석(李允錫)  
한종욱(韓鍾旭)

	김상수(金相洙)
	노태원(盧泰源)
	안항섭(安恒燮)
본손(本孫) 유사(有司)	정창주(鄭昌柱)
	송이호(宋离浩)
	김환진(金煥珍)
	김영호(金永皓)
	정병규(丁炳奎)
	김환익(金煥益)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읍시, 2020